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딜리트

설재인 장편소설

주제어: 학교, 교육, 미스터리, 연대

•책 소개

외고에 진학한 진솔은 쏟아지는 과제와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정보고에 진학한 해수는 무책임한 부모와 불확실한 진로에 흔들린다.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둘은 우연히 두 학교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사라진 이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학습 목표

- ① 소설에 제시된 불합리한 인식과 사회적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 ③ 작품 맥락을 파악하고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며 작품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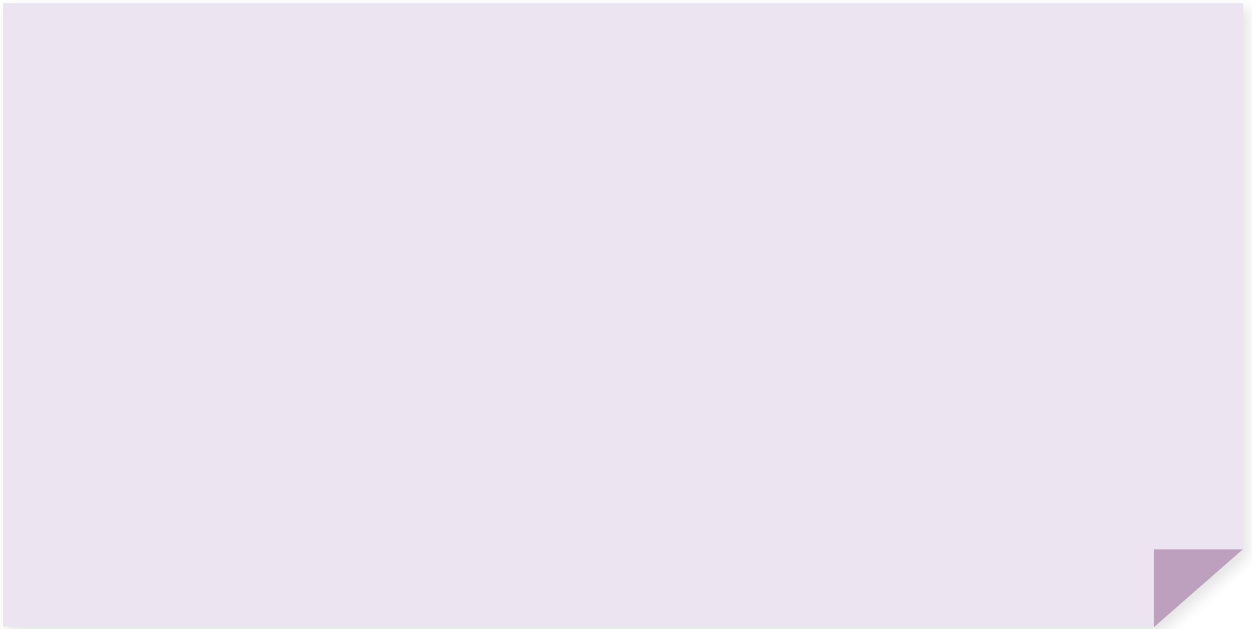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2	독서 중 활동	프롤로그 ~ 05장 1. (사실적 읽기) 인물 특징 정리하기 2. (비판적 읽기) 등장인물 비판하기 3. (감상적 읽기) 인물의 감성 이해하기
3		06 ~ 10장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공간적 배경 파악하기 3. (비판적 읽기) 등장인물 행동의 적절성 판단하기
4		11 ~ 15장 1. (사실적 읽기 + 감상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 자아 돌아보기 2. (추론적 읽기)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3. (감상적 읽기) 작품을 토대로 생각 확장하기
5		16 ~ 20장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소설의 구성 단계 추론하기
6		21 ~ 25장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3. (창의적 읽기) 작품의 내용에 제시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생각해 보기
7		26장 ~ 에필로그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마지막 장의 역할 파악하기 3. (감상적 읽기) 등장인물 감정에 공감하기
8		독서 후 활동

1. 다음 물음에 답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여러분의 단짝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2) 단짝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후 친구의 특징 세 가지를 써봅시다.



특징1: _____

특징2: _____

특징3: _____

【지도 TIP】

외형뿐만 아니라 태도나 습관 등 친구의 다양한 모습을 떠올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단짠과 어떻게 친해졌나요?

4) 단짠의 장점을 사례와 함께 말해봅시다.

장점1: _____

장점2: _____

장점3: _____

【지도 TIP】

소설 속 중심인물인 해수와 진솔은 단짠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단짠을 떠올려 보는 활동을 통해 작품 속 인물에게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세요.

2. 다음 영상을 보고 ‘기회균등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참고 영상: 수능 창시자가 말하는 우리나라 현재 입시 제도의 현실
<https://www.youtube.com/watch?v=BVusnYSiaVc>

【지도 TIP】

6:20 ~ 16:50까지의 영상만 시청해도 됩니다. 작품 속 인물인 진솔은 사통전형으로 서원외고에 진학하여 학생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진행할 만한 논제이지만 여기에서는 작품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가볍게 다루주세요.

1. 등장인물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이름	특징
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정보고 입학 •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학에 가고 싶어 함. •
해수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진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진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해수 부모의 행동을 비판해 봅시다.



참고 영상: 평범하게 사는 건 한심한 짓이야

https://www.youtube.com/watch?v=luin3Q_7Lgk&list=PLxIYNTU2dUyVSuOoFkGo7IJ7HLQ2_8pDa&index=3&t=120s

〈보기〉

“뭐 하러 인문계 가서 헛바람 들고 돈 쓰냐고. 아빠가 말했잖아, 고3 때부터 돈 착착 벌면, 어? 아빠가, 백 배 천배 늘려 준다니까? 네 고모 같은 멍청이들은 평생 쥐꼬리만 한 월급 받고 아등바등 저축하면서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고3 때부터 바로 취직해. 그럼 이 아빠가 그 월급, 아주 기가 막히게 불려서 줄 테니까. 너 인마, 몇 년만 지나면 공부도 일도 안 하고 아빠 덕에 놀고먹을 수 있게 된다니까? 아빠 못 믿어?”

“엄마가 얘기했지. 공부해서 잘되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엄마 아빠 말만 믿고 따르면 인생이 알아서 착착 굴러갈 텐데, 왜 네 고모처럼 몸 축나는 길로 가려고 하니?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쓰려고 하냐고. 미치겠네, 돈 먹는 하마를 키우고 있네, 내가! 너 근데 살은 언제 빼니?”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해수가 자해를 멈출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봅시다.



참고 영상: 자해를 하는 사람의 솔직한 생각

<https://www.youtube.com/watch?v=VNgNLtRwHxl&t=188s>

〈보기〉

방어용으로 갈기 시작한 빗은 언제부턴가 해수의 허벅지를 찌르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옥설이 들릴 때마다, 그래프가 떨어질 때마다, 서로를 탓하는 저주의 말들이 메아리칠 때마다 해수는 빗을 꺼내 사타구니에 가까운 허벅지 안쪽을 찔렀다. 아무도 보지 못할 곳을. 피가 나면 정신이 맑아졌고 무섭게 뛰던 심장이 차분해졌다. 그러면 알코올 숨을 꺼내 상처 부위를 따갑도록 문질렀다.

처음에는 집에서만 그랬는데 점점 충동을 참는 게 힘들어졌다. 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불현듯 허벅지가 근지러우면 빗을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진솔이 해수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도서관까지 쫓아오지 않았다면 해수는 절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을 것이다. 〈중략〉

해수는 자신 때문에 누군가 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같이 울었고, 진솔은 네가 뭘 잘못했느냐고 신경질을 부렸다.

“답답하면 찔러. 근데 내 팔뚝을 찔러. 네 허벅지 말고. 부르면 무조건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금지야. 내가 맨날 검사할 거야.”

그날 이후로 해수는 한 번도 허벅지를 찌른 적이 없었다.

【지도 TIP】

영상 속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밝힌 자해를 하게 된 원인, SNS에 자해 사진을 올리는 이유, 당시에 듣고 싶었던 말 등을 유심히 보고 진솔이 해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빈칸을 채워봅시다.

1. ()은 해수가 가장 좋아하는 어른이었다.
2. 담임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진솔이 ()으로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3. 진솔은 입학 원서에 자신의 꿈은 ()라고 적었다.
4. 해수 학교 수학교사는 수학 문제를 묻는 해수의 질문에 ‘한 달이면 끝날 ()’하지 말라며 무시했다.
5. 해수는 아빠에게 ()을 들켜 흠씬 얻어맞았다.

2. <보기>에서 묘사한 장소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보기〉

마침내 끝까지 내려왔다. 긴 복도. 천장에 전등이 달려 있었지만 해수는 스위치를 찾지 못했다. 복도 옆에는 교실 크기의 방들이 계속해서 늘어서 있었다. 창문으로 안이 들여다보였다. 창고로 쓰인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캐비닛이나 서류 더미로 뻑뻑하게 찬 수납장 같은 것들이 보였다.

해수는 복도를 조금 더 걸었다. 걸음을 옮길수록 방들은 점점 비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방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핸드폰 플래시 불빛을 집어삼키는 서류 더미가 없었다. 놀란 해수는 그 방의 창 쪽으로 더욱 바짝 다가섰다.

플래시의 움직임에 따라 낮은 책상과 폭신한 빈백, 작은 책꽂이와 수납장, 그리고 심지어는 무드등이나 선풍기 따위까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책상 위에는 뜯어 놓은 초코파이 비닐과 그 부스러기가 몇 개 떨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왔다 간 것처럼.

3. 진솔이 해수에게 ‘대리 수행평가’를 제안한 행동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대단하네, 공부하려는 의지가. 너무 뿌듯하다. 가난한 애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개는 돈을 톡, 진솔의 책상에 올려놓고는 얼른 뒤돌아섰다. 그러곤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종알종알 떠들며 매점으로 향했다. 진솔은 뺏뺏한 지폐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었다. ‘도움이 된다’니. 자기가 하기 싫은 수행평가를 돈 주고 시켜서 거짓 점수를 받는 주제에, 마치 불쌍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다니.

하지만 진솔은 화를 내지 않기로 했다. 혹여 아이들의 심기를 거슬렀다가 누군가 담임에게 고자질이라도 할까 두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해수가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그 어떤 어른도 지지하지 않았지만, 해수가 자신의 미래에 꼭 필요한 공부를 게걸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진솔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_____

나는 진솔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_____

【지도 TIP】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보기>에 제시된 인물들의 '신앙'에 대해 정리한 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그래.”

어쩌면 그게 신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해수는 생각했다. 진솔의 부모는 인맥과 특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수 자신의 부모는 돈의 뒤통무니를 좇으며 부의 축복을 갈망한다. 그걸 믿지 않으면 정신 나간 삶, 망한 삶으로 치부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쉴 새가 없다. 생각할 시간도 없다.

그런 식이라면 나의 신앙은 뭘까. 해수는 매일 야자하러 가는 진솔의 뒷모습을 보며 곰곰이 자문해 왔다. 그러고는 결론을 내렸다. 나의 신앙은 이 깨끗한 공간과 내 손에 돌아온 빛에 있다고. 누군가에게는 무용해 보이는 일을 땅 밑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에 기대어 있다고.

진솔 부모의 신앙	
해수 부모의 신앙	
해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2. <보기>에 밑줄 친 ‘통로를 밝힌 사람’은 누구일지 상상해 봅시다.

<보기>

해수는 진솔보다 조금 늦게 통로를 나서며 형광등 스위치를 껐다. 천천히 걸어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지하 통로가 다시 밝아졌다. 통로를 밝힌 사람은 해수도, 진솔도 아니었다.

【지도 TIP】

아직 통로를 쓰고 있는 인물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열린 질문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보기>를 참고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에 대해 말해봅시다.

<보기>

“나는 이제, 비로소, 있잖아.”

그 말이 스위치를 끄기 위해 일어나려는 해수의 어깨를 다시 잡아 돌렸다.

“아주 무섭지만 있잖아…….”

쨍한 형광등 빛이 해수의 얼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생하게 비추었다. 진솔이 웃었다.

“그렇지만 비로소 행복한 느낌이야.”

서로 사랑하는 것.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것. 자신이 넘어지지 않는 지팡이가 되어 주거나 넘어져도 상대를 탓하지 않는 것.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 준 뒤 약을 발라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이라면, 두 사람 다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 정의에 가까운 사람을 이제야 만난 것 같다고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_____ 존재이다.

1. 다음 물음에 맞으면 O, 틀리면 X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 ① 하나는 서원정보고 졸업생으로 서원외고에 기간계약교사로 채용되었다. (O / X)
- ② 서원정보고 학생들은 문제를 일으킨 해수를 경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O / X)
- ③ 하나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연림이었다. (O / X)
- ④ 해수와 진술에게 나타나던 유령은 지하 통로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O / X)

2. 17장(125~132쪽)을 참고하여 ‘유령’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16~20장이 소설의 구성단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소설의 구성단계〉

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배경과 인물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공된다. ▶ 사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시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된다. ▶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건의 반전이 일어난다.
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된다.
결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보기〉

귀만 쫓긋 세우고 있던 해수는 모든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일어나서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 그만 울고 잊어 달라고 말할 힘도, 용기도 없어서 누워 있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비로소 너무 늦은 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에 혼자 이 밤에 저토록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나가게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벌떡 일어났다. 슬리퍼를 꿰어 신고 층계를 뛰어올라 공동현관을 지나쳤다. 그러나 이미 진술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유령들이 나타났다.

여자 반, 남자 반 할 것 없이 모두 들끓었다. 곧 정보고 학생들 대부분이 들어간 거대한 단독방이 생겼다. 재단이 얼마나 정보고를 차별하는지부터 성토는 시작되었다. 인력시장에서처럼 우리를 가지고 장사해 돈 버는 주제에 1인분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면, 며칠 후에는 졸업한 선배들까지 합세했다. 고3 때 학교에서 취업을 주선했던 업체들이 얼마나 악질 기업이었는지, 부당함을 토로하는 자신들에게 입을 다물도록 어떻게 강요했는지 붓물 터지듯 나왔다.

그 와중에 담임은 또다시 해수를 불러 퇴학을 운운했다. 이전 같았으면 다들 별다른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저 오늘도 누군가가 담임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둘 다 잘못했는데, 왜 왜고 애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나요? 왜 정보고 학생이 사과해야 해요? 재학생들은 단독방에서 졸업생들에게 와글와글 물었다. 가뜩이나 사회에 보호구 하나 없이 튕겨 나가면서 가슴에 응어리가 뿔뿔 뭉쳐 있던 졸업생들은 집단행동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지도 TIP】

<보기>에서 제시된 소설의 구성단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를 작품 속에서 찾아 근거로 활용하여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소설의 구성단계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사례와 더불어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 서원정보고 습격단은 어떤 방법으로 서원외고 부지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나요?

2) 해수와 진술은 연림과 미희를 각각 어떻게 불렀나요?

3) 연림과 미희는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나요?

4) 시험시간에 진술의 책상은 왜 흔들렸나요?

2.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너 같은 애’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에 담긴 진술의 심리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뭐라는 거야? 진술은 입을 반쯤 벌리고 반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귀에 들리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한 두 명에서 알음알음 시작한 ‘대리 수행평가’가 들불처럼 번지게 된 이유가 바로 반장의 홍보 때문이었다. 제발 나도 연결해 달라고, 한 명만 더 받을 수 없냐고 진술의 앞에서 사정사정하던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반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네가 반 분위기를 완전 잡쳐 놨다고.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사기 치는 법이나 가르치고. 다른 사통들은 어떻게든 성실하게 쫓아오려고 하는데, 너 같은 애 하나 때문에 착한 사통 애들 이미지 다 나빠지고. 우리가 손해 본다고, 너 같은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알아?”

반장이 말했다. 몇 번 아이가 사통인지 읊으며 퍼뜨리라고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로. 그러고는 더 크게 소리쳤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수행 대신해 달라고 할 땐 그렇게 간절하게 빌었으면서!”

이판사판이었다. 진술도 비명을 지르듯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시험 안 망했어, 내가 스스로 했으니까. 너희가 사기 쳤으니까 벌받은 거잖아!”

한참 후에 “우리가 올라오면 어차피 시험 망치는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던 거야?”라고 정 보고 졸업생 중 누군가 물었을 때, 진술은 자신이 느꼈던 기이한 두려움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다. <중략>

“‘너 같은 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저 같은 애가 되면 인생 망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애가 되지 않으려 했나 봐요…….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서원정보고 학생들의 서원외고 습격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참고 동영상: 장애인이동권, 그들이 지하철을 세운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DZyurvCvug8>

〈보기〉

학창 시절 학생회장이었으나 지금은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콜센터에서 일한다는 선배가 이어 말했다.
- 조금이라도 피해를 봤다고 느껴야 그들의 저열한 면을 까뒤집어 보여 줄 수가 있거든. 전쟁은 꽃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난 그걸 일하면서 배웠어.

누군가 묻기도 했다.

- 아무 잘못이 없는 외고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찌죠?

그러자 어떤 선배가 대답했다.

- 자기 시험 한 번 망친다는 이유로 우릴 비난할 성정이라면 애당초 좋은 인간이 아니야. 그런 애라면 나중에 자기 출근길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휠체어를 탄 이를 비난하겠지.

1. <보기>를 참고하여 전단지 같은 종이에 있던 사진이 전부 사라진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해수는 사람들을 모두 보내고 마지막으로 잠시 고개를 돌려 통로를 봤다. 그러곤 불을 끄려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전단지 같은 종이에 있던 사진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보기〉

“우리가 학교 건물을 무너뜨릴까 해. 다 사라지도록. 완전히 박살 내고 싶어.”

입술도 코도 눈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든 유니폼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던 진솔의 시야에 마침내 들어온 것은 콧등에 있는 점과 윗니에서 빛나는 은빛 교정기였다.

“우리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하지만 한 번쯤은 원한 같은 거 품어도 되잖아. 한 번쯤은 우리가 여기에 존재했었다고 말해도 되잖아.”

진솔이 유니폼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유니폼은 사라지고 없었다.

학교를 무너뜨린다고?

“미쳤어, 너?”

진솔이 벌떡 일어났다. 날카롭게 갈아 놓은 손잡이 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아프네. 해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콧등에 점이 있고 교정기를 낀 채 환히 웃고 있던 어느 선배의 얼굴과 그 죽음의 이유를 떠올렸다. 그 선배는 얼마나 아팠을까.

【지도 TIP】

보기에 제시된 ‘유니폼’의 외형을 힌트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유령의 존재가 보이지 않은 해수의 상태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해수는 그때까지 유령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습격이 시작되고 통로에서 사진들을 마주한 이후로, 해수의 눈에는 유령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혼들이 지켜 주고 있을 수도 있었고, 해수 자신이 강해졌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진솔은 그렇지 않았다. 해수는 자신이 조금 미워지려고 했다. 잠시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솔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거라 여겼다. 진솔도 괜찮을 거라 여겼다.

3. '시위에 참여했던 누군가'라면 해수와 진솔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진솔과 해수는 함께 전학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우습게도 서원정보고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서원외고에서 가는 건 쉬웠는데도. 참 이상한 일이었다. 해수는 고민 끝에 자퇴를 선택했다. 진솔도 해수를 따라 자퇴서를 냈다. 일단 해를 넘긴 후 다시 새로운 학교에 1학년으로 재입학할지, 아니면 아예 검정고시를 볼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자퇴하고 사라지면, 우리는 지는 걸까?

둘이 나란히 누워 그런 질문을 주고받을 때마다 귀신같이 연립이나 미희, 혹은 시위에 참여했던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고는 했다.

※ 다음 질문에 답을 하며 ‘능력주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다음 질문에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으면 X에 동그라미 치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질문1: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내 노력과 능력 덕분이다.	
○	×
질문2: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	×

[지도 TIP]

다음 질문에서 활용될 영상에 똑같은 질문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견해가 드러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질문을 제시해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눈 후 다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2. 아래 질문에 답하며 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참고 영상: 르브론 제임스가 받는 연봉은 공정한가?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MPPrZJrKzxPc&t=69s>

1)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한 능력주의란 무엇인지 써봅시다.

2) 마이클 샌델 교수가 능력주의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든 사례의 주인공과 그의 직업을 써봅시다.

3)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의견에 대한 패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답변을 정리해 써봅시다.

▶질문:

▶답변:

【지도 TIP】

13:46 지점에서 제시된 질문입니다.

3. 마이클 샌델 교수의 ‘능력주의’를 활용하여 다음 영상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인터뷰를 설명해 봅시다.



참고 영상: 공부의 배신 2부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XJgly6a4t5I&list=PLxIYNTU2dUyVSuOoFkGo7IJ7HLQ2_8pDa&index=5&t=1977s

【지도 TIP】

19:00 ~ 29:00까지만 시청하도록 지도해 주셔도 됩니다.

4. 오늘 배운 점을 바탕으로 작가가 『딜리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를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학교에서 사라진 아이들,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다. 지워진 그 이름들을 나라도 부르고 기억하자고 생각한 순간,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작가의 말' 중에서)

5. 이 소설의 제목 '딜리트'의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delete

동사 (쓰거나 인쇄한 것을) 삭제하다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 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난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 17 딜리트 설재인 장편소설
- 16 울지 않는 열다섯은 없다 손현주 장편소설
- 15 열다섯에 꿈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비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올러 장편소설
-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올러 장편소설
-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비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9 엄마의 엄마 스키 루리카 장편소설
- 08 미짓, 기적을 일으켜줘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7 빙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 06 우리 둘뿐이다 마이클 콜먼 장편소설
-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 04 스쿼시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키 루리카 장편소설
-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비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1 리버보이 팀 보올러 장편소설